

함께 가는 여성



창간에 부쳐

'함께 가는 여성'은 남녀가 평등하고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 사회를 향한 여성들의 힘찬 대열에서 받침돌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첫째, 복종적이고 이기적이며 나태한 여성상을 극복하고 당당하고 진취적이며 건강한 여성상을 고

취하려 한다. 이 사회의 지배 질서는 소위높여 순종적인 여성, 성적 매력있는 여성을 찬양하고 있으나 우리는 현실의 생활에 굳건히 뿌리박고 있는 여성의 건강성을 발굴할 것이다.

둘째, 여성들의 연대의식을 돕고자 한다. 생산직여성, 사무직여성, 주부, 농촌여성, 학생 등, 각자가 현재 서있는 자리와 지금 갖고있는 생각들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은 진정한 민주사회와 남녀평등사회의 건설에서 공통의 이익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통의 목표를 위해 각자가 몸담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를 위해 연대의식을 갖고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셋째, 여성대중이 올바른 정치·사회의식을 갖도록 힘쓰려 한다. 여성들은 비록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정이라는 책무까지 같이 지고 있으므로 흔히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고 자기 가족, 가정의 작은 울타리에 갇혀있는 수가 많다. 거기에다 지배질서는 여성에게 올바른 의식, 깨어나는 의식을 주기 보다는 온갖 거짓된 정보와 허위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여성의 정치·사회의식을 잠재운다. 우리는 여성이 잘못 보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현실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남녀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여성 스스로의 판단을 도우려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여성들을 위한 신문이라고 해서 여성의 특수한 문제만을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여성들은 여성의 특수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문제를 발생시키는 사회전반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조직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작은 변화도 여성대중이 함께 참여할 때만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거듭 거듭 명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언제나 구체적 생활의 현장에서 기사를 고집어내려 한다.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 분노, 기쁨과 함께 왜곡된 의식, 이기적 태도 등을 도마위에 놓고 같이 토론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우리 여성들은 자신의 분노, 외로움이 혼자만의 것이 아닌 모두가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였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함께 가는 여성'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구호의 남발이 아닌 친절한 사실탐구로서 여성 스스로의 공감 속에 뿌리박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의욕만 크고 힘은 못미쳐 주저앉지 않도록 여성 여러분의 큰 성원과 가르침, 적극적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

소식난

여성정책협의회 열려 '취업에서의 성차별 실태와 개선방향'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성차별이라는 또 하나의 굴레를 쓰고 있는 여성취업조건에 관심이 환기되고 있다. 지난 9월 5일 오후 3시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에서 '취업에서의 성차별 실태와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민주실현을 위한 여성정책협의회'가 그것.

이날 행사는 이보다 앞선 7월 29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여성이 바라는 민주헌법에 대한 견해'에 이어 두번째 열린 것으로 이번에는 '또 하나의 문화'가 주관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했다.

대체로 헌법에서는 '추상적으로' 취업에서의 남녀평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하위법과 관행이 이를 뒷받치지 못해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지적하고, 구체적 취업조항 등을 따지는 자리로 이날 행사가 마련되었다.

정책협의회는 문미란씨(이화여대 법학과)가 '여성차별 관행에 관한 연구'를, 이은영씨(외대 법학과)가 '여성취업평등 촉진법에 관한 연구'를 각각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논평, 질의, 응답으로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실적으로 남녀차별이 행해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여성에 대한 보수적 의식과 관행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또 이를 없애기 위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만 해도 제5조, 11조에 남녀차



별대우금지조항이 어긋나와있으나 너무 추상적이고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남녀차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생길 때 아무 도움을 못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취업상 남녀평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좀더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우고 세부사항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에 의견을 모았다. 그 대안으로 이은영씨는 ▲ 채용이나 채용광고에서 구직자의 성(性)·가족사항(기혼·미혼 등) 등을 언급하는 행위 금지 ▲ 어느 직업이나 작업장을 남녀 특정한 성(性)으로 못박는 남녀차별금지 ▲ 동일가치 노동은 동일 임금 ▲ 여성노동자의 결혼·임신·출산은 해고사유 안된다 ▲ 성(性)에 따라 직업훈련배치, 승급·승진차별 불가 ▲ 평등수령 위한 여성의 잠정적 이익(예: 성별 쿼터제 도입) 조치는 위법이 아니다 등을 제안했다.

작품이 준비된 것이다. 이 전시회에는 5명의 공동작품 '여성과 현실, 무엇을 보는가'라는 대형 유희도 출품된다.

준비위원장은 '여성문제를 내용으로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그림에서 여성적 요소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한다.

전시기간중에는 개막제 행사인 '여성해방 열람극' (11일 오후 5시), 최석태씨의 강연 '미술작품에 나타난 여성', 이미경씨의 강연 '여성과 현실, 무엇을 보는가' (15일 오후 5시)가 있을 예정이다. 전시회 마지막날인 17일 오후 7시에는 평가회가 열리는데 참가작가는 물론 관람객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문의는 738-3767.

서울시내 초·중·고교사 서울교사협의회 발족

6.29이후 일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해 오던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가 9월 4일 서울지역부터 정식 발족식을 가졌다. 동시에 참가교사들 사이에서 기존 교직단체인 대한교육연합회, 예비남부거부 및 회원탈퇴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대한교련의 존재가 흔들리고 있다.

대한교련은 민법상 사단법인으로서 법인설립과 사무, 정관변경 등 운영에 관한 전반을 감독관청인 문교부로부터 일일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때문에 대한교련은 교사권리보호와 교권옹호라는 목적으로 교원들이 조직한 이익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여용단체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85년 민중교육지사전, 86년 교육민주화선언 등으로 교사들이 구속, 과면되는데도 계속 외면만 하고있어 일선교사들간에 원성이 커졌다. 바로 이같은 교사들의 불만이 새로운 민주교사조직결성 움직임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한교련은 전국 32만 교원중 26만명이 회원으로 등록, 매달 1천5백~2천원씩 내는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회원탈퇴운동이 확산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교에서는 단체로 회원을 탈퇴하는 등, 대한교련 자체에서도 이 추세가 계속되면 약 3분의 1의 회원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여성과 현실, 무엇을 보는가?'

여성작가 40인의 그림잔치

현실과 부대끼는 가운데 겪을 수밖에 없는 여성들만의 고난을 여성작가들의 손으로 파헤친 대규모 전시회가 열린다.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그림마당 민'에서 열리는 '여성과 현실, 무엇을 보는가? - 여성작가 40인의 시각전'.

이 전시회를 위해 김인순, 김진숙, 윤석남씨 등 준비위원회가 결성된 것은 지난 4월이다. 작년 10월, 시월모임의 '반에서 하나로' 전시회 이후 만들어진 여성문제 스터디그룹 회원들이 이 기획전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아, 이번에 40명의



이렇게 생각한다

최근 노사분규를 보며

"이것 어떻게 되는거냐"

"뭔가 불안하다"

6·29이후 노사분규가 열병처럼 번지고 때로는 폭력화하는 양상도 나타나자 여기저기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29전에는 같이 한목소리로 '민주화'를 외쳐왔던 중산층, 시장상인들, 주부들, 개인택시 기사들까지 이제 노동자들의 자기권리 요구가 지나치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자들에 대한 불만과 불안은 대체로 세가지로 들 수 있겠다. 첫째 임금의 오르면 물가가 올라 경제가 흔들린다는 것, 둘째 노동쟁의의 전수가 너무 많고 두달내내 계속되고 있으니 이제 그칠 때도 되지 않았냐는 것과 폭력화, 과격화에 대한 것, 셋째 이리다가 또 군대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다.

민주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터져나오게 되어있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노동자의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향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 불안감과 비탄의 근거를 꼼꼼히 따져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듯 하다.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

첫째, 임금과 물가문제를 생각해보자.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86'을 보면 쟁의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5%이다. 즉 임금이 10% 오른다 해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1%도 안되는 0.85%인 것이다. 이렇게 신빙성 있는 통계는 왜 TV화면이나 신문에 나오지 않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오히려 임금이 10% 오르면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10% 그대로 늘어나 전체 경제에 맑은 면도 있게 된다. 노동자들이 10% 임금이 올랐다고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 활동에 투자할지도 없고 외제수입품을 써서 국가경제를 좀먹을지도 없으며, 수탈되면 외국에서 살려고 외화도피를 할지도 만무하다. 확실하게 국내에서 구매력을 촉진시켜 국내기업의 판매시장이 늘어나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임금상승을 외면하는 것은 무

엇보다 우리 경제가 상품을 국내가 아닌 외국에 내다파는 수출위주경제이기 때문이다. 국내 노동자들은 상품을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임금을 올려서 구매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수출위주의 경제 정책이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여기서 자세히 다룰 수는 없다. 본지에서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볼 기회를 다시 가질 것이다.

'폭력'의 실상을 제대로 들여다보자

다음은 노동자들이 지금껏 억눌려온만큼 쟁의하는 것을 처음에는 이해했으나 이젠 너무 오래하고 있고 또 폭력화되고 있지 않느냐는 불만을 보자.

흔히 '1천만 노동자'라고 하는데, 지난 8월말로 3천전의 쟁의가 일어났다는 공식통계를 보더라도 실제 쟁의를 한 노동자 숫자는 3백만을 웃도는 정도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7백만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만히 있어도 3백만명 쟁의의 덕을 보아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가?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옳지 않으면 절대로 쟁을 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쟁의는 곳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대개의 쟁의는 한 사업장에서 한번 혹은 두번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언론매체를 통해보면 모든 노동자가 매일 쟁의를 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게 된다.

이 장기적이고 파괴적인 쟁의발생은 상당부분 기업주의 책임에 기인한다. 합리적 방법으로 개선의 길이 막힌 상태에서 최후수단으로 노동자들이 쟁의를 시작하면 대기업들은 축적된 재력을 바탕으로 휴업에 돌입하거나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 또 협상을 끌어 노동자들이 지칠 때를 기다린다. 뿐만 아니라 기존 고용노조를 두들기고 민주적 조직을 봉쇄하기 위해 구사해 같은 것을 조직하여 폭력으로 탄압하거나 노동자를 분열시킨다. 바로 이런 때 노동자들의 쟁의 양태 역시 폭력적으로 되어가는 것이다. 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고려없이 무조건 노동자의 폭력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못된다.

그리고 차분히 따져보면 폭력적 쟁의는 전국 3천전 이상중 극히 일부분이다.

'불안'은 누구에게 봉사하는가?

셋째, 어렵게 얻어낸 민주화 국면이 혹시 뒤집히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을 생각해 보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바로 그러한 '불안'에 하는 심리'를 달고 비민주적 세력은 다시 일어난다. 온 국민이 이 과정을 민주주의의 필수과정으로 견뎌내지 못하고 '불안! 불안!'을 유포시킬 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불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돼버리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민주화 도정은 아직 불확실한 요소가 많으므로 노동자들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불확실함을 확실함으로 굳히는 것은 민주주의를 반드시 내 손으로 키우겠다는 국민의 확고한 의지이다. 이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어떠한 비민주적 세력도 감히 도전할 수 없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자. 그것은 노동자가 있는 곳에는 노동운동이 있다는 세계사의 철칙이다. 어떤 나라도 예외가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만 유난히 덮어두고 감춰두고 예쁜 천으로 가려왔기 때문에 우리 눈에 낯설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진정한 민주화란 무엇일까?

전국민중 1천만을 차지하고 가족까지 합하면 2천 5백만을 육박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 못하고 민주적 조직도 없이 기계처럼 일만하는 경제활동물도 전락한다면 참다운 민주 사회가 되겠는가? 민주주의는 부자들만의 것일 수 없다. 전국민의 80%를 차지하는 근로대중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민주적 참맛을 언제 어느 곳에서도 느낄 때, 즉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부터 정착될 때 진짜 민주화는 이루어진다.

노동쟁의의 폭력성은 본가지가 아닌 결가지이고 어떤 면에서는 기업주의 각성이 있어야 진정될 수 있는 현상이다. 결가지를 보고 불안해서 본가지를 잊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래야 민주주의가 한발 앞으로 나간다.

만남/민주노조 결성에 참여한 의보련 부위원장 김진현씨

“사무직여성 스스로의 벽을 깨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노동조합결성과 쟁의 소식이 온통 산문을 뒤덮고 있다. 이 움직임이 싹트던 초기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노조중 하나로 꼽히는 금융노련 산하 의료보험연합회. 입신 9개월의 무거운 몸으로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여성 김진현씨(29)를 만나 노조결성 전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차노조가 깨진 지 2년만인 지난 7월 1일 우리의 꿋꿋한 의지로 2차노조 결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연합회는 사립단체나 각 직장서 거둬들인 의료보험료를 관할하고 각 병원에서 청구해 오는 진료 및 약의 사용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곳으로 직원이 7백명. 권의 입김이 심하게 작용하는 곳인 만큼 노조결성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지난 85년 6월에도 노조를 결성했지만 곧 깨져버렸다.

“당시에 동료들은 정말 피눈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부당국과 회사의 엄청난 탄압으로 20일만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자주적인 조직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했었습니다”

2년전 노조활동이 실패하자 동료들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소그룹활동을 시작해서 소그룹이 무려 20여개에 이르렀다고 한다.

“주로 여성들이었어요. 감시도 심했고 또 우리 자신의 벽을 깨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나도 노동자’라는 의식이 부족한 사무직노동자들의 마음자세가 골벽이었지요”

사무직여성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장은 결혼하기전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는 이기적인 사고가 이곳 여직원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런 허술한 직업의식은 직장을 ‘일할만한 곳’으로 개선하는데 전혀 도움을 못주고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퇴보를 부채질할 뿐이기에 이를 극복하는 일이 우선이었다고 한다.

“우리는 꾸준히 공부하고 활동하면서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부당한 잔심부름이나 ‘미스X’ 등의

호칭에 대해 거부하는 것 등이었지요”

김씨는 1차노조가 깨진 직후 회사측에서 만든 노사협의회 임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이 활동속에서 노사협의회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의견 반영은 커녕 회사의 일방적 지침에 둘러러 서주고 합리화시켜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된 김씨는 자주적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소그룹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바로 이 소그룹들이 지난 7월 1일의 노조결성과 그후 17일간의 지대한 싸움을 이겨내는 받침돌이 되었다고

“민주화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부당노동행위가 없느냐구요? 마찬가지로요, 압력, 회유, 분열, 고립작전이 그치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의 각오가 전과 달랐을 뿐입니다”

6.29선언이 있어서 자유롭게 노조설립이 가능한 줄 알았더니 천만의 말씀이었다고 한다. 노동조합은 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이 더 걱정이라고. 바로 이번만 해도 17일간의 격렬한 쟁의를 거쳐야 했었다.

“설문조사, 간담회를 거쳐 지금껏 쌓여있던 문제들을 7개항으로 작성해 ‘노사협의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노조를 무력화시키자는 속셈으로 10일이 지나도록 일언반구 반응이 없었어요. 게다가 조합원을 고립시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노조에 대한 흑색선전에만 열을 올리더군요”

합법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 회사와 어떤 식으로 맞서야할지 난감했다. 결국 1차적 항의방법으로 85년 당시와 이번 재결성때 주축이 된 조합원 중 사소한 일

로 부당해고된 동료가 모여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우리 요구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회장은 교섭에 응하라’는 것이었지요. 언론에서는 노동자들더러 무조건 쟁의한다고 욕하지만 당연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회장은 어떻게 처벌하나요? 우리는 며칠만 걸근하면 해고인데 소식이 없이 사라진 회장은 열흘이 넘어도 전채하잖아요?”

조합원들은 근무가 끝나면 단식농성중인 간부를 곁을 떠나지 않고 청야를 해주고 점심을 같이 끓였다. 그러나 단식 7일째 이런 평화적 방법에 대해 회사는 어이없게도 휴업공고로 맞섰다. 조합원들은 너무 분개하여 파업을 결의하고 전산실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자 가족들은 가족협의회를 구성해서 노동부, 보사부를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단식자들은 속속 병원으로 실려가 입원을 했으나 조합원들의 열기는 높아만 갔다.

“도리어 노조가 조합원들의 열기를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몰라 당황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지방지부가 생기면 노조에 가입한 사람을 제일 먼저 내려보내겠다’는 등 위협이 끊이지 않았지만 조합원들은 오히려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싸워 무시당하는 거라며 분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긴 싸움을 버텨낸 끝에 그들은 마침내 승리, 새로 바뀐 회장과 노사협의회를 하게 되었다. 김씨는 이토록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2년여동안 쌓여온 두터운 동료애와 직장민주주의 확립이라는 신념 덕분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이제는 서너명만 모여도 자연스럽게 분임토의를 하는 조합원들이 있으니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노조현판식, 교육프로그램…… 산더미 같은 일을 앞에 쌓아두고 있는 김씨. 그녀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산전산후휴가조차도 ‘못찾아먹고 있다’고 말하며 인터뷰가 끝나기 무섭게 자리를 떴다. 그녀를 찾는 전화벨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생활속의 실천

KBS 시청료거부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6.29 직후 시청료거부 범시민운동 여성연합 사무실에는 '민주화가 됐으니 이제 시청료거부운동을 끝내도 되겠다.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는 시민들의 전화가 연이었다. 또 어떤 시민은 그동안 내지않은 시청료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냐며 이 운동의 종결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징수원들은 재빨리 '바라, 이제 민주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 KBS 뉴스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 시청료를 내라'고 회유 또는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변했는가. KBS는 공정보도를 하고 있는가.

6.29 직후 정부여당은 '언론은 누구도 장악할 수 없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언론기본법의 폐지를 전제로 신문·출판부와 방송부문에 관한 두 개의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한편으로 한국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민정당의 대체입법안과 개정공사법안을 살펴보면 이른바 '언론기본법적 질서'의 골격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KBS 시청료를 전파수신료로 이름만 바꾸어 '방송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오히려 개악이라 할 수 있다. KBS측을 봐도 불공정·편파 보도 및 방만한 경영실태가 근본적으로 개선된 점은 하나도 없다.

이는 곧 전국민의 저항을 일으킨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KBS 시청료거부운동 역시 아직 끝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KBS 시청료거부 범시민운동 여성연합에

는 지금 이 시간에도 거리의 스티커를 보고 회원이 되겠다고 전화하는 아주머니와 직장여성들, 회원가입 안내전단과 소식지를 받아보러 2살난 어린애를 등에 업고 광화문 사무실을 찾아오는 젊은 주부 등 지금껏 집안살림밖에 몰랐던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오고 있다.

성남 주민교회의 여성 30여명은 스스로 시청료거부운동 반대식을 갖고 가두캠페인을 벌였는가 하면, 인천 샘터교회 주부들은 봉고차 한 대를 빌어 동사무소에 몰려가 분리고지신청을 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KBS 시청료거부운동은 매달 2천5백원을 절약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민주화를 이뤄나가는 시민저항운동이다. 이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집에서, 점포에서, 혹은 동사무소에서 시민 개개인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서 싸워야만 한다.

여기서 간략하게나마 대응방법을 알아보자.

●징수원이 찾아왔을 때

- ① 단호하게 시청료거부운동 참여자임을 밝힐 것.
- ② 가급적 대문을 열어주지 말 것.
- ③ 징수원의 신분, 이름을 확인해 둘 것.
- ④ 어떤 종류의 협조문, 서류에도 일체 서명하지 말 것.
- ⑤ 관한 시청료장수 출장소에 징수원의 불쾌한 언행을 수시로 항의, 고발전화할 것.

●시청료독촉장 및 강제징수경고나왔을 때

- 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 것. 돈내는 일은 한달만 채납해도 독촉장이 나오게 마련이다.

- ② 지금까지 강제징수 사례는 한 건도 없다. KBS가 하자면 할 수도 있는 강

제징수를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통합고지서가 나오는 지역에서는

현재 서울의 6개구(관악·강남·동작·은평·마포·용산구)와 인천·대전·대구·경주시에서 통합고지서에 시청료를 포함시켜 발부하고 있다. 원래 통합고지서 발부 자체가 주민과 행정상의 편의제도일 뿐이며, 전기, 수도세와 같이 시세(市稅)도 아닌 시청료를 포함시킨 것은 시청료를 한 집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술책일 뿐이다.

- ① 동사무소에 가서 분리고지 신청을 할 것. 분리고지 신청은 시민의 권리이며, 분리고지서 발부는 동직원의 의무이다. 당당한 자세로 신청한다.
- ② 분리고지신청서 이유란에는 '시청료 거부운동에 참여'라고 쓰고, 분류종류란에는 '시청료와 기타 공과금'이라고 표시한다.
- ③ 가능하면 뜻을 같이 하는 이웃 2,3명이 함께 갈 것. 일부 동직원들이 갖은 트집을 잡아 안해주려 할 때 서로 힘이 된다.
- ④ 동직원이 불친절하거나 부당하게 거부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해당구청 민원실로 고발전화할 것.
- ⑤ 전담의 TV시청료 미수금이 있어도 분리고지가 가능하다. 많은 동사무소에서 미수금을 핑계로 분리고지가 안된다고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 ⑥ 학무가내로 동직원이 분리고지서 발부를 안해줄 때는 시청료거부 여성연합(737-6891)에 전화, '언제라도 주민이 원할 때는 분리고지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의 답변서 복사본을 구해 동직원에게 제시한다.

●아직 통합고지서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 ① 통합고지 실시 협조문에 절대 서명하지 말 것.
 - ② 통합고지실시를 적극 반대할 것.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면 더욱 좋다.
- 이외 KBS와 문공부장관(강제징수시행을 승인한 책임), 시장과 내부부장관(시청료를 통합고지서에 포함시킨 책임)에 항의전화를 건다.

징수원이 찾아왔을 때는 단호하게 시청료거부운동 참여자임을 밝히고 어떤 종류의 협조문, 서류에도 일체 서명하지 않는다.

편파 · 왜곡 · 조작 보도 중지

고발 · 상담 737-6891
항의전화 KBS로!

KBS-TV 시청료 거부
민주시민의 정당한 권리운동입니다

KBS-TV 시청료거부범시민운동여성연합

광고방송 폐지 아니면 시청료 폐지

회원이 됩시다

고지서를 보냅니다

여성의 정치의식 높아지고 있다

6월 시위전후 급격히 분출된 여성들의 정치의식, 그 뿌리와 실모습,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진단해본다.



4. 13호헌선언으로부터 7월 9일 고 이한열 열사의 장례행진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역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을 이룬 이 기간동안 우리 여성들은 여성들의 정치적 각성의 고양과 실천적 참여가 이제 막을 수 없는 큰 파도가 되어 밀려오고 있음을 절감할 수 있었다.

4. 13호헌선언이 있은 후 각계각층에서 발표된 호헌철폐 시국성명에서 여성들의 이름은 빠짐없이 한 갈래를 이루었다. 의사, 약사, 간호원, 교수, 교사, 주부(이대 동창서명 등) 등을 위시하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의 발기인에는 여성이 1백62명으로 발기인 2천명중 집단으로는 두번째로 많은 숫자가 참여했다.

국민운동본부의 호소에 대해 동송동의 서민아파트에서, 강남지역의 중산층아파트에서 9시 뉴스에 맞춰 일제히 꺼버린 소등의 호응도는 그 캄캄한 암흑의 크기만큼이나 밝은 여성들의 민주화 열기를 보여주는 듯했다.

그뿐만이 가두에서 벌어진 시위에서도 여성들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살인적인 최루탄 가스와 피관을 피할 길 없어 울크린 시위대에 달려진 서타를 올려주던 대연각 빛길 음식점의 여종업원들, 사무실이 난장판이 되는 것도 아랑곳않고 연신 물수건, 세숫대야, 휴지 등을 날라주며 '문닫고 일찍 퇴근하라고 지시가 내려졌지만, 어쩔지 그대서는 안될 것 같아 남아있었다'던 여성들, 직원숫자만큼의 검은 리본을 만들어 돌리고, 그것을 가슴에 달고 근무한 보험회사의 여직원회, 시위대라면 무조건 공짜로 음식을 돌려주던 시장 아주머니들, 시민들에게 유니폼을 잘라주며 다니던 회사 여사무원들, 시위는 겁이 나서 못했지만 토근 수십개를 사서 온종일 버스 타고 다니며 차창밖으로 박수치고 다니는 '작은 일'을 했다는 동창계의 주부들, 최루탄이 난무하는 속에서도 시위대의 앞장을 섰던 여학생들.

이제 여자들이 데모하고, 정치적 발언

을 하고 농성하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기이하고 생소한 현상은 아니게 된 것이다.

물려졌던 정치의식

지금까지 여성의 정치의식은 어떠했던가?

많은 여성들이 '난 정치같은 것은 몰라' 하고 자랑스럽게 도리질을 했다. 어쩌다 정치의식이 높고 정치권력에 비판적인 여성을 보면, 마치 벌종동물들 처다보듯 했고, 속으로 '저런 여자를 어느 남자가 데려갈까?' 라고 비웃었다. 어떻게든지 얼굴과 몸매를 가꾸어서 유능한 남자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잘 키우면서 평생 정치의 '정' 자도 몰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게 기다리던 결혼을 한 후 여성들이 직면하게 되는 현실, 생활난, 물가문제, 주택문제, 아이를 잘 키우는 문제, 교통문제, 건강문제, 환경문제, 가족간의 갈등, 어느 것 하나 정치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건만 여성들은 신세한탄, 남편 원망만 하거나 자기 가족이 개별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느라 급급했지 여성과 정치의 관계를 직결된 것으로, 바로 나의 문제로 정립시키지를 못했다.

여성들이 정치의 존재를 가장 심각하게 의식하고 정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는 것은 대개 남편과 자식들의 정치적 활동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였다. 이때의 여성들은 남편과 자식의 정치적 활동을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채, 위기에 처한 집안을 꾸려나간다고 난에 차고 한이 댔던, '정치에 일방적으로 당한' 여성들이었고 이것은 또한 긴 기간 동안 우리 문학작품의 가장 흔한 소재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과거의 여성상 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문맹이 오히려 자랑스러웠던 여성상, 한뼉한 수동적 여성상이 서서히 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에 의해 수난을 참고 견디며, 남편과 자식과 시절을 원망하며 인고하던 여성상이 깨어지고 있음은 무엇보다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의 어머니, 아내들이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들 여성들은 더이상 남편과 자식의 다리를 움켜잡으며 '난 어떡하라고, 자식들은 어떡하라고' '너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는 애소와 협박은 하지 않는다. 남정네가 떠나간 집안을 말더라도 눈물과 한탄으로 서가 아닌 당당한 책무로서 말으며, 나아가 남편과 자식의 대의(大義)를 자신의

대의로 받아들이며 누구보다 굳세게 싸우는 일꾼으로 변화한 것이다.

정치문맹을 자랑으로 알았던 일반적 여성상은 어떤가?

민주화운동에 뛰어들 땀으로 학교에서 제명당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차디찬 감옥으로 끌려간 여성들의 숫자가 수백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이 여성상이 반석위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자신의 평생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삼아 각 분야에서 뛰고있는 여성들의 숫자는 또 얼마나 많아졌는가.

그뿐 아니다. 교회여성들, 수녀들, 비구니스님들까지 바뀌고 있다. 종교의 피안에 안주하여 내세의 안녕을 기원하는 저 세상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어린양들, 중생들의 거칠고 고된 삶의 병든 뿌리를 도려내는 종교라야 한다는 현세의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70년대 노동자들의 투쟁에서부터

그런데 이 뒤바뀐, 이 변화는 언제 어

특별기획

디서 비롯된 것일까? 지금껏 이 사회에 지배적이었던 여성상에만 익숙한 눈에는 4.13 호헌에서 7.9 민주국민장 행렬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보여준 높은 정치의식, 행동은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이나 갑작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갑작스러운 현상이란 없다.

여성들은 80년 이래 국민의식의 비약적 성장안에서 함께 키워왔던 것이다. 그러나 70년대와 비교하여 특별히 주목할만한 점은 있다.

6.25로 인해 사회운동이 거의 완벽하게 단절된 이후 50, 60년대를 거치는 동안 이 땅의 여성운동은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을 뒤흔쳐주는 어용성, 여성대중과 유리된 지도자 개인의 독단적 조직운영 등으로 일관되어 왔었다.

70년대 들어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여학생들의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여성운동의 기반이 서서히 확대되고는 있었으나 아직은 여성대중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단계로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노동운동

6

정치문맹을 자랑으로 알았던 일반적 여성상은 어떤가? 민주화운동에 뛰어들 땀으로 학교에서 제명당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차디찬 감옥으로 끌려간 여성들의 숫자가 수백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이 여성상이 반석위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9



특별기획



“최근 여성들의 높아진 정치의식은 여성들이 당당한 정치세력으로 결집되는 것이 환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서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나긴 고난의 여정을 지나 이제 우리 여성들은 오랜 역사속에 숨겨졌던 그 거대한 몸체를 드러내며 한발 한발 힘차게 내딛기 시작한 것이다.”

동은 70년대 우리 여성운동사에서 가장 크고 뚜렷한 봉우리였다.

60년대 이래 한국경제의 골간은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의 구조에 기반한 수출위주경제였고, 이 구조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은 해당기업 이전에 정권이 먼저 나서서 곤봉과 투옥과 해고로 맞섰다. 노사문제가 터졌다하면 형사가 먼저 달려오는 판이었으므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 확보 투쟁이 곧바로 정권과의 직접대결을 뜻하는 것임을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즉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은 그들이 의식했던 안팎의 그 자체로서 정권의 유지기반에 타격을 주는, 당시로서 가장 치열한 정치투쟁적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80년대의 새 현상 - 6월 투쟁기간 동안 가장 크게 표출된 - 은 70년대 이래 여성노동자들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던 이른바 중간층 여성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권력을 무조건적으로 두려워하고, 억울한 피해를 당해도 꺾소리 못하고 움츠러들던 상태에서 많은 여성들이 벗어나고

있다는 조짐은 6월 이전에도 이미 보이고 있었다.

84년의 수해때 유수지의 수문봉괴로 큰 피해를 입은 방원동에서 주부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라든가 일조권, 환경권 등을 침해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아파트단지의 주부들이 끈질긴 항의를 벌여 건설회사를 후퇴시킨 사례들과 같은 권리투쟁은 근년들어 빈번해져 왔다.

물론 이같은 권리의식이 사회전체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올바른 민주주의의식과는 상관없이 자기집단, 계층만의 이익을 고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함정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KBS 시청료거부 범시민운동에 성연합에 호응하는 여성들이 보여주듯 이같은 권리의식이 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 역시 잠재해 있는 것이다.

조직으로 모인 여성들

4월에서 6월까지를 보며, 여성의 정치의식 성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아직도 압도

적 다수의 여성은 과거의 여성상에 머물러 있으며, 그 기간동안 보인 여성 대중의 호응은 일시적, 산발적이었을 뿐이며, 민주화에 대한 인식이 불철저한 탓에 민정당 노태우 대표의 6.29 선언이 나왔을 때 '선거하면 노태우를 찍겠다'는 류의 터무니없는 감동을 표시한 것도 여성들이 다수었다느니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모두 옳은 말이다. 그러한 현상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성의 정치의식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며, 6월 민주화 투쟁기간 동안 펼쳐진 국민적 열기가 앞으로 우리 여성들을 더욱 각성시키고 전환시킬 에너지의 원천으로서 두고두고 작용할 것임을 크게 믿게 된 것이다.

더우기 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는 각종 여성단체, 소모임 등은 여성들의 정치의식 성장을 뒷받침 해 오고 있다. 6월 시위를 전후한 시기에 여성들의 힘이 분출되어 보일 수 있었던 것 역시 이 집단들의 크고 작은 노력들이 굳건히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운동권의 '기동타격대'로 불릴 정도로 온갖 시위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해 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6월 시위의 와중에서 최후반추방공청회를 열어 반독재열기를 가속시키는 데 기여했던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크고 작은 여성단체들의 존재는 여성정치의식의 발전에 큰 낙관을 내리도록 격려하고 있다.

여성단체의 회원으로서 이번 일련의 시위를 겪어낸 한 여성은 스스로도 자신의 변화에 놀랐다고 말하고 있다.

"몇몇이 모여서 이런 것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불의는 없어져야 한다고 소근소근 이야기하던 그 똑같은 내용들을 이제 수만, 수십만의 시민들이 함께 외치게 된 광경을 목격하면서, 저 자신, 우리 사회에 대해 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속한 모임에서도 이제 무슨 일을 해나가야 할지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흔들림없는 정치의식으로

조용한 것처럼, 침묵의 바다에 파묻힌 것처럼 보이던 여성들을 환호하고, 고향 지르고, 박수치게 만든 것은 우리 여성들의 고달프고 뒤떨어진 삶이, 실은 변화를,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진실의 반영이다. 비록 명확히 깨달은 상태는 아닐지라도 자신의 삶의 모습은 변

화를 갈망하고, 또 그 변화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깊숙히 연결되어 있다는 삶의 직관이 그들을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 대다수 여성들-변화에의 욕구를 깨닫지 못한 채 일상생활속에서 살아가고 있던-이 체험하고 표출한 열기가 일회적인 것, 산발적인 것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들 모두가 각종 모임이나 단체활동, 즉 조직속에서 튼튼히 뭉쳐져야 한다. 여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여성운동의 조직속에서 우리 여성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공분, 의식, 권리의식을 더욱 심화된 정치의식으로, 어떠한 호도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치의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개인으로 흩어져 있을 때 사그라질 열기도, 집단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더욱 확실하고 힘찬 걸음으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4월에서 6월의 기간동안 표출된 여성들의 높아진 정치의식은 여성들이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일익을 감당하는 정치세력으로 결집되는 것이 환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나긴 고난의 여정을 지나 이제 우리 여성들은 오랜 역사속에 숨겨졌던 그 거대한 몸체를 드러내며 한발 한발 힘차게 내딛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들의 정치의식, 그 선두에 선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들은 이번 4.13에서 6.29까지의 시위동안 한 여성단체의 이름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그간 심심치 않게 신문지상을 오르내렸던 '한국여성단체연합'. 4.13호헌철폐를 위해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삼인최후탄추방에 발벗고 나서고 또 6.29 선언이후에는 명동성당에서 '민주시민대동제'를 열기도 했다.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 놀랐다. 우리 여성들의 정치적 힘이 언제 여기까지 와 있었는가.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으로 표기)은 사실 한 단체가 아니고 21개나 되는 여성단체의 연합체이다. 올바른 여성해방과 민주화의 길을 모색해나가는 데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이 모인 여연은 올

해 2월 8일 발족되었다. 즉 이 연합체는 발족되자마자 온갖 정치적 격변을 겪어내야 했던 것. 그러나 이 새로 태어난 연합체가 온갖 정치적 탄압속에서도 꿋꿋이 건드내며 자기 목소리를 다하게 된 것은 여연이 생겨나기 훨씬 이전부터 면면히 이어져왔던 여성운동의 결과였다.

83년 하반기부터 여성평우회, 여성의전화 등 새로운 여성단체가 생겨나면서 지금까지 여성의 여가선용이나 잘난 여자들의 사교장, 아니면 집권여당의 구색맞추기 들러리 정도로만 인식되어온 기존 '여성운동'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84년 말 시위도중 잡혀간 여대생들이 알몸으로 기함을 받는 등의 충격적인 '여대생 추행사건'이 일어나자 이 단체들을 중심

특별기획

으로(11개 단체) 대책협의회가 구성됐고, 이 활동은 민주화를 지향해가는 여성단체들간의 첫 연대활동이 되었다.

85년 3월 8일에는 이 단체들을 중심으로 '제1회 한국여성대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3월 8일은 원래 1908년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것을 기념하는 '세계여성의 날'로 우리나라에만 유독 알려지지 않았던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여성운동을 대표하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매해 9월마다 전국여성대회를 치러왔으나 이 행사의 이용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여성대회가 준비된 것이다.

이렇듯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이후 터진 각종 사건에 공동대처(봄보이 불매운동, 25세 조기정년 철폐운동, 생존권대책위원회, 부천시 성고문 사건 대책위원회 등)하면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굳건해졌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연을 떠받치는 여성운동역량 또한 성숙되어 왔던 것이다.

6.29 선언 이후 여연은 지금 논의되는 제반 민주화초치들이 결코 완전한 것일 수 없다는 인식으로, 민주화 투쟁의 폭과 깊이를 넓혀가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여연은 단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따로 회원을 받지는 않지만 산하단체 회원과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신문 '민주여성'을 내고 있다.

여성만평



혼수절약 캠페인, 왜 메아리없이 공허할까?

이지은 (‘함께 가는 여성’ 편집위원)

‘과도한 혼수비용을 쓰지 마시다’ ‘적정 혼수 — 예단은 시부모 등 직계 가족에게만’

‘살림은 살아가면서 하나씩 어렵게 장만하는 것이 사는 재미다. 요즈음 젊은 이들은 왜 이 사는 재미를 외면하는지 안타깝다’

결혼철이 가까이 오면 여성단체들, 신문·여성잡지 등에 번잡스럽게 자주 오르내리는 귀절들이다.

사실 혼수는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있다. 시집에서 갈치밥을 까봐 무리해서 큰딸을 보냈다가 둘째딸이 혼기차도록 혼수비용 때문에 혼사를 서둘지도 못하는 부모, 20여년을 다독이며 살다 이제 눈물로 헤어져도 시원찮을 딸과 혼수 때문에 신경전을 벌이며 인생의 허무를 느끼는 늙은 부모, 친정어머니 에단을 빚돈으로 장만하고는 그 빚 갚느라고 신혼을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지내는 새댁, 혼수가 빚미가 되어 급기야 이혼했다는 부부 등……. 이런 와중에서 주눅이 든 부모·딸들은 안간힘을 쓰며 하나라도 더 주고, 더 가져 가려고 용을 쓴다. 정말, 즐겁고 행복한 결혼을 우울하고 짜증나게 할 뿐 아니라 소리없이 각종 비극까지 만들어내는 혼수라는 괴물에 대해 뭔가 선전포고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절박함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가고 있다. 2~3년전 쯤부터 늘어난 혼수절약 캠페인도 이런 분위기를 배경으로 한 것일 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홀랑한’ 캠페인을 벌이는 사람들의 충성에도 불구하고, 결혼부터 말한다면 혼수절약 캠페인은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앞으로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런가? 혼수절약 캠페인이 과도한 혼수풍조를 만들어내는 근본구조에 대해서는 시각을 돌리지 않고 단지 사람들의 ‘도덕심’이나 ‘이성’에만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을 한번 차분히 따져보자. 여기에



상당한 재력을 가진 한 부모가 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모두 최고급으로 하고, 시시로 외국여행도 다니고, 빚도 하고, 빚도 해도,…… 재산은 본전 그대로 남아있다. 아니 다달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 재산을 다 무엇에 쓸 것인가? 왜 결혼하는 자식들에게 제주도 갑골농장, 아파트, 상가건물 등을 아껴서 자식들을 ‘생고생’을 시키겠는가? ‘캠페인’을 벌이는 당사자들이라도 그 재력이 있다면 아마도 달리 쓰기 어려울 것이다.

결혼하는 자식들의 입장에서 보자. 돈 없이는 평생 설움받고 눈치보며 살게 마련이라는 것은 국민학생만 되어도 안다. 약삭빠른 남자들이 왜 ‘준다’는 부모의 돈을 거부하겠는가. 무엇 때문에 청춘을 바쳐가며 안해도 될 ‘생고생’을 일부러 하겠는가?

‘사’자 달린 사위를 보면서 최소한 연쇠 3개는 장만한다는 이 부류들, 신혼여행을 하와이, 홍콩으로 보내는 이런 최

상층의 부의 과시가 아래로 아래로 전파되면서 이 사회에 과다혼수 풍조를 만연시킨 것이다. 그리하여 가난한 농촌부모가 빚을 내서라도 몇백만원 들여 혼사를 치르고, 어지간한 셀러리맨들까지 다이아 박힌 백금반지를 예물로 받지 않으면 친구들간에 창피스럽다는 지경이 된 것이다. ‘결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신세 지지 않는다’는 옛속담은 어디로 가고 ‘부모도 좋고 처가도 좋으니 많이만 해다오’가 부끄럼없이 요구되는 형편이다.

이런 판국이니 혼수절약 캠페인이 무슨 실효가 있겠는가?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이거나 현실 모르는 이상가의 고매한 설교가 되어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는 거의 아무런 힘도 못미치게 마련일 수밖에 없다. 이름되면 분명한 일은 이러한 과다혼수를 만들어낸 진원지를 향해서 캠페인을 벌이든지 말든지 할 일이라는 점이다. 즉 자식들에게 평생을 놓고 먹을 수 있는 호화혼수를 서슴없이 해줄 수 있는 부를 최상층에게 제공해온 경제절서

6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캠페인을 벌이는 사람들의 충정에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말한다면 혼수절약 캠페인은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앞으로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럴까? 혼수절약 캠페인이 과도한 혼수풍조를 만들어 내는 근본구조에 대해서는 시각을 돌리지 않고 단지 사람들의 '도덕심'이나 '이성'에만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체가 캠페인에 포함되어야만 온전한 혼수절약 캠페인이 된다는 점이다.

87년 2월호 '신동아'에 실린 '지표가 말하는 빈부격차의 실태'에 의하면 82년 현재 전국적 소득분포에서 최상위계층 10%가 전체의 28.05%를 차지함에 비해 하위 50% 계층은 38.3%의 소득을 차지하고 있다. 자산의 분포상태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재산상속세납부를 보면 1983년중 상위 8%가 상속재산가액 전체의 43.7%, 하위인원 43.6%가 전체의 17.6%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속세 산정과 납부의 비현실성 때문에 실제 격차는 이것보다 훨씬 심할 것이다. 그외에도 가계자산의 분포(최상위 10% 계층이 가계자산 총액의 39.4%를 점유, 하위 40% 계층은 점유율이 10% 남짓), 토지소유 분포(대전시의 경우 1984년 현재 대전시 인구의 1% 남짓이 대전시 대지의 50% 이상을 소유) 등의 지표가 모두 우리 사회 부의 편재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의 편재현상이 곧바로 최상위층의 재산규모를 말해주지는 않지만 한국사회 전체의 경제규모 크기로 보아 그 부가 어마어마하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이 부의 대부분이 근검절약의 결과라기보다 부동산투기, 특혜금융, 세금 포탈, 근로자에 대한 저임금유지 등등의 결과라는 것 또한 이미 많이 지적되고 있다.

혼수절약 캠페인이 실효를 거두려면 바로 이러한 특권적 수혜집단을 만들어내는 경제질서가 도마위에 올려져야 하는 것이다.

유독 혼수절약 캠페인이 아니더라도 우

리 사회에는 의식개혁의 대상이 많이 있다. 이 모든 의식개혁운동들, 캠페인들은 활발히 펼쳐져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풍조, 왜곡된 의식을 만들어내고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기반에 대한 인식없이, 기반의 변화를 촉구하지 않고서 벌이는 의식개혁운동, 캠페인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 운동방식은 있으면 있는대로, 기동뿌리 뚫어서 고통스럽고 없으면 없는대로 못해가서 고통스러운 다수 대중들의 고통과 곤경에 직접 맞닿지 않는다. 오히려 죄없는 대중들에게 윤리적 설교를 행함으로써 대중의 죄의식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가짜와 진짜

사랑

박노해

사랑은 잔인한 것, 냉혹한 결단
사랑은 투쟁, 무자비한 투쟁
사랑은 회오리,
온 바다와 산과 들과 하늘이 들고 일어서
폭풍치고 번개치며 포효하며 피땀으로
새로이 나는 것
그리하여 마침내 사랑은
고요의 빛나는 바다
햇살 쏟아지는 파란 하늘
이슬 머금은 푸른 대지위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 하나이 되어
춤추며 노래하는 눈부신 새날의
위대한 잉태
사랑은 자기를 해체하는 것,
우리가 되어 역사속에 녹아들어 소생하는 것
사랑은
슬픔, 가슴 미어지는 비애
사랑은 분노, 철저한 증오
사랑은 통곡, 피투성이의 몸부림
사랑은 갈라섬,
일치를 향한 화연한 갈라섬
사랑은 고통, 참혹한 고통
사랑은 실천, 구체적인 실천
사랑은 노동, 지루하고 괴로운 노동자의 길



이야기마당/TV드라마 '사랑과 야망'

‘정자’는 적극적인 여성!?

한 독자가 보낸 편지

「사랑과 야망」에서 우리의 유별난 관심을 끄는 여자가 있다. 철들기 전부터 태수를 죽자사자 쫓아다니는 두이이의 엄마가 된, 그러나 지금은 자식들을 버리고 도망간 ‘끼있는 여자’, 태수의 부인 정자가 바로 그녀이다.

그동안 지긋지긋하게도 부부싸움으로 일관한 정자 부부의 결혼생활은 저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의문조차 품게 만들었고, 그녀의 신경질적인 짜증과 욕설은 동정조차 받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모성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여자, 남자의 인생을 구거버린 여자, 정자는 과연 죽어 마땅한 죄인인가? 몇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먼저 정자의 적극성에 대한 매도이다. 우리는 수많은 드라마에서 여자를 얻기 위한 남성의 폭력적인 권위와 소유욕이 ‘남성다움’과 ‘매력만점’으로 치장되는 것을 본다. 반면 남자의 사랑을 얻기 위한 정자의 적극성은 ‘내 인생을 구거버린 징그러움’으로 무자비하게 비난받는다. 왜 남자의 저돌성은 찬양되어야 하고 여자의 적극성은 ‘가까이 오지마, 징그러, 소름 돋아’ 등으로 매도되어야 하는가? 이는 여자의 수동성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결혼 이후 그녀는 장정도 감당해 내기 힘든 엄청난 양의 가사노동과 육아를 도맡아 해야 했다. 모든 식구들의 뒤통수대리기를 그녀 혼자서 하지만,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시키려만 들었다. 그러나 정자 태수는 다정한 눈길 한번,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를 않는다. 오히려 건디다 못한 그녀의 가솔에 대한 식구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삶의 좌절에서 오는 갈등이나 번민은 전혀 이해받지 못하고 모성을 내팽개쳤다고 화살만 쏟아진다.

그렇다면 그녀의 남편인 태수는 어떨는가? 태수는 결혼한 후에도 옛 애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몰래 만나러 다녔다. 그런 태수의 무책임한 행동은 오히려 못어성들의 눈물선을 자극하며 ‘순정파’로 미화되었다. 소처럼 일만 해야



편집자주 : 사랑과 야망은 요즘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TV드라마이다. 수유리에 사는 20대 여성이 이 드라마 주인공중 한명인 ‘정자’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이 글을 보고 3명의 여성이 이야기마당을 펼쳤다. 투고 및 이야기마당이 8월초에 있었으므로 최근의 드라마 전개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이야기가 드라마 자체에 대한 평이 아니라 정자를 평가하는 투고자의 시각에 대한 것이므로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어 실기로 한다.

하는 정자에게 퍼붓는 그의 구박과 멸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아내 대접은 커녕 집에서 키우는 동물보다 더한 푸대접을 한 태수는 마땅히 그 무책임함에 대해서 비판받아야 한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수와 같은 남성형이 우리 사회에는 비일비재한 현실이 서글볼 뿐이다.

정자에 대한 일반의 매도는 너무 가혹하다. 정자의 인간적인 갈등을 좀더 애정 어린 눈으로 보아야 한다.

김 : 드라마 속에서는 시청자들에게나 당하고만 있는 정자를 새롭게 보게 해준 글이어서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수동적인 여성상만을 좋게 보던 일반인들의 시각에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이 : 전 이 투고와 생각이 다릅니다. 정자의 성격을 적극적이라고 보는 건 문제가 있어요. 정자의 행동은 오히려 주책이 아닌가요?

김 : 사랑을 위한 정자의 눈물겨운 노력이 왜 주책입니까? 자신을 별로 사랑하고 있지 않은 남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기울인 그녀의 노력이야말로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이 : 아닙니다. 사랑이란 기본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절도가 있어야 하는데, 정자를 보면 막무가내예요. 상대방의 감정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려는 정자의 행동은 이기적인 것이지 적극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일 수도 없구요.

김 : 하지만 남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가 여자를 소유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달려들면 오히려 ‘남성다움’으로 추켜지잖아요.

이 : 물론 잘못된 풍조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다시 정자같이 저돌적이지만 한 여성상을 적극적이라고 추켜세운다면 우리 역시 똑같이 잘못된 시각을 갖는 것이 아닐까요.

김 : 정자가 자신만을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태수도 정자의 접근을 완강히 뿌리쳤다고 볼 수 없어요. 둘이서 연애했을 때를 보면 정자가 오해하게끔 행동한 점이 태수에게도 많아요. 정자만 막무가내라고 보면 곤란합니다.

이 : 태수가 우유부단한 행동을 한 것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자가 진짜 적극적이라면, 남자가 도저히 싫다고 했을 때 차라리 떠나서 새 삶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어요?

박: 맞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싫다고 하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고 하는 논리를 일반화시키는 건 지금의 사회구조를 고려해볼 때 탁상공론적인 원칙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처럼 여자의 이혼 경력이 문제시되는 봉건적인 사회구조, 여자가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운 여건을 도외시하는 거지요. 이런 일반화는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전문직 여성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보통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허용치 않는 사회구조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이 문제의 해결에 여성의 힘을 모아야만 가겠다고 생각합니다.

김 : 정자가 감당했던 살인적인 양의 가사노동은 어떨습니까? 미혼인 저로서는 때때로 저렇게 초처럼 일만 하고 어떻게 사나 하고 공감이가네요.

이 : 물론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남편의 다정한 눈길 한번 못받고 엄청난 가사노동을 하게 된 상황은 동정이 가요.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여성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구요. 그러나 이 드라마에서 볼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식구들도, 시어머니도, 모두들 뼈빠지게 일을 하고 있어요. 애정없는 결합과 엄격한 성별노동 분업이 문제이지 가사일의 양이 많다고 불평하는 것은 철없이 보입니다.

박: 또 50년대에는 누구나 그 정도 식구들을 감당하면서 살았지요. 오늘날에도

많은 기혼여성들이 엄청난 이중 노동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들에 비하면 정자가 많았던 가사노동의 양이 많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김 : 여자를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슬쩍 건드려 임신시킨 태수의 무책임한 행동도 비판받아야지요. 정자와 태수는 결혼한 후에도 애정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태수는 과거의 여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새 생활을 꾸려나가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를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 정자가 남편의 애정없음과 구박으로 가솔하는 건 필연적이지 않겠어요?

이: 그건 태수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정자 역시 어떻게든 관제를 개선시키려는 노력 대신 부정과 욕설, 자포자기적 인 신경질로 일관했으니까요.

박: 태수는 어떤 면에서는 책임감이 있었다고 봐야해요. 정자의 임신으로 결혼한 것은 자의반 타의반이었다 할지라도 일단 책임을 다하려는 결과였으니까요. 어쨌든 그후의 결혼생활을 시끄럽고 위태위태하게 이끌어 나간 것은 둘의 잘못이지 한편의 잘못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수에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정자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물때애는 왜 임신시키니까? 소름이 끼칠 일 아닙니까?

이 : 저는 그런 비판은 상당히 관념적

원장이었는데 결혼후 유치원을 그만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만두어야 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퇴직을 둘러싼 갈등, 고민도 전혀 언급이 없어요. 유치원 원장까지 하던 여자가 결혼후 당연히 그만둔다는 것은 오히려 특수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너무 당연히 그려져 있어요.

김 : 은환의 전체적인 모습이 봉건적인 것은 전처의 아이들과 잘 지내기 위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박: 비현실적인 설정이지요. 그런 점에선 은환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점은 있어요. 또 자기 아이가 있으면 전처의 아이들과 잘못 지낸다는 생각도 문제이지요.

이 : 어쨌든 이 부고의 평가처럼 정자를 옹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동정할 수는 있어도요.

박: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느낀 점은 우리 여성에 대한 상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묘사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함정에 많이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김 : 드러머 등 메스컴에서 항상 이런 극단적인 여성상을 조장한 탓이 크다고 생각해요. 정자가 논란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지요.

이: 무조건 온화를 좋게, 정자를 나쁘게 생각하는 의식도 문제지만, 자칫 그 역작용으로 터무니없이 자기 뜻대로만 하는 이기적인 여성상을 '적극적이고 주체'



이지 않나 싶어요. 부부가 매일 한방에 살고 있는데…… 아무리 한쪽에서 싫어하지만 말이지요.

박: 처음 잘못 채워진 단추가 계속 잘못 채워지는 거나 같은 것이지요. 그외의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까요?

김 : 은환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은환의 봉건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이 '여
자다움'으로 찬양되는 건 문제가 있지 않
을까요.

박 :은환을 수동적이라고 보기는 힘들
요. 태수가 떠나고 난 후 아버지의 결
단코를 거부한 것이나, 태수를 먼저 찾
가서 '결혼하자'고 한 모습은 결코 수
동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성적인 시각이라는 것이 전체 사회의 균형에 대한 고려가 없이 무조건 여자가 일을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상당히 퍼져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이 투고를 보고 받게 되는군요.

박 : 건강한 여성상, 정말 적극적인 여성상을 만들어내는 게 시급합니다. 앞으로 여성상을 아주 나약하거나 아니면 아주 터무니 없도록 그리는 드라마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들이 먼저 이 폐해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여성의 주체성을 자각해 나가는 과정이 함께 될 때야만 진정한 여성상이 드라마에도 제대로 등장하겠지요.

르포/명동성당 천막촌 아이들

“다시 철거되지 않을, 그런 집이 있었으면……”

명동성당을 오르다 보면 이제는 누구에게도 낯설지 않은 상계 천막촌과 그속에서 살아가는 상계동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천막안을 기웃거렸을 때, 천막안의 뜨겁고 후덥지근한 열기는 잠시 들여다보는데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였다. 그 땀통같은 천막안에서 남자아이 서넛이 장기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 천막은 주로 잠자는 곳으로 이용되는 곳이었으나 다른 하나의 천막에는 간단한 취사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아이들은 얼마 아씨가 돌아가면서 밥을 짓는다고 말했다.

이 조그만 천막안에서 73세대 1백5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한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주민들도 천막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몇명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천막안이 비좁고 더워서 천막집이나 천지집에서 자고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이곳에서의 생활을 물었을 때 아이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대답했다.

“아주 불편해요. 밤에 잘 땀 좀아서 움직이기도 힘들구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시끄러워서 공부도 안돼요. 그래서 자꾸만 놀게 돼요.”

“그래도 여러 사람이 한식구처럼 같이 밥먹고 잠도 같이 자고 해서 좋아요.”

상계천막은 원래 큰 천막 2개와 공부방으로 쓰이던 작은 천막 1개로 시작되었다. 그나마 공부방으로 쓰던 천막은 6월 10일 명동성당 농성사건때 전경들이 던진 최루탄으로 부서져 버렸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공부방을 두번이나 철거당했던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동물원의 원숭이 처다보듯 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명동에 있는 집이 진짜 너네 집이냐?’ ‘너희는 거지냐, 천막치고 살게’ 하고 놀려서 싫어요.”

자꾸만 이상하게 쳐다보던 어떤 아이와 싸움까지 했다는 국민학교 6학년생의 불만 소리였다.

13명쯤 되는 국민학생들이 아직도 전철로 상계국민학교까지 통학을 하는데, 학교에 가도 친구들이 자꾸 놀리는 바람



에 어린 꼬마들은 학교 가기를 싫어한다고 한다.

삼의 터전을 빼앗기고, 마음놓고 놀 곳조차 없는 상계동 어린이 3명이 철거지역에 가서 놀다가 철거되다 만 담벼락이 무너지는 바람에 ‘동근이’가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었다. 한 어린이는 ‘철거만 안했으면 동근이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라고 천진스레 물어보기도 했다.

집이 꼭 장난감 같아

아이들은 철거당시의 상황을 각자 조각조각 기억하고 있었다.

“철거할 때요? 내가 없는 사이에 우리집이 철거되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 학교에서도 공부가 잘 안됐어요. 집에 오니까 벌써 우리집은 몽개져 있었고 엄마 아빠는 안보였어요. 겁이 막 났어요. 어쩔 줄 모르고 울고 서있으니까 어른들이 명동으로 가보라고 했어요.”

“포클레인이 집을 부수니까 집은 꼭 장난감 같았어요. 짱대들이 몰려와 우리집 물건들을 탁치는대로 부수고 동네사람들을 두들겨 때는데 전경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짱대들에게 달려드니까 오히려 동네사람들을 막았어요.”

어린이들은 전경이나 경찰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경찰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신들을 막 때리고 집을 부수고 사람이 죽어 가는데도 내버려뒀다는 데서 오는 원망이었다.

“동화책을 읽고 싶어요. 철거반이 강제로 옮겨버려서 내 동화책이 없어졌어요.”

“우리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생들은 자꾸만 전에 살던 집으로 가자고 엄마를 졸라요. 작아도 좋으니까 다시 철거되지 않을 그런 집이 있었으면……”

어린이들의 소원은 한결같았다.

집/우리집/우리집이 있었으면……. 서울 시내를 가득 메운 수많은 집들, 그러나 이들이 작은 날개를 접으면서 설 수 있는 조그만 보금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

어린이들의 전경놀이

어린이들은 철거를 ‘올림픽 때문에’ ‘도시재개발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돈도 한푼 안주고 내쫓는 것은 나빠요!”

철거반대투쟁이 한창일 때 이 어린이들은 같은 반 아이들한테 ‘너희들 때문에 동네가 더러워지는데 왜 빨리 철거하지 않느냐’며 ‘거지같은 것들’이란 말들을 들었다 한다.

이 어린이들이 받았던 차별과 고통은 그들의 꿈이 무엇인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한 중학생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사겠다고 했고, 국민학교 6학년생 어린이는 ‘대모학생’이 되고 싶다고 했다. 명동농성사건이나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집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지만 이유를 묻자 자신들의 처지를 제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았다고 한다. 이 어린이들도 ‘소외’나 ‘차별’이니 하는 말들을 알고 있는 것일까.

이야기를 끝내고 명동성당을 내려오는 길에 너댓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애들이 전경놀이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한편은 학생역할인지 ‘우리 승리하리라’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다른 편은 ‘잡아라!’ 하고 외치며 뛰어돌고 있었다.

독자서평

따뜻한 '우리의 동지'를 되돌아보다

김정숙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모처럼 윤정모의 '가자, 우리의 동지로'를 읽었다. 여기에 실린 아홉편의 이야기 중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역시 책의 제목으로 되어있는 '가자, 우리의 동지로'였다. 이민을 가서 미국에 살고있는 교포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작품이다. 대부분의 한국인에게서는 막연한 부러움의 대상으로 미화되어 온 미국사회와 재미교포들의 삶이 발가벗겨져 그 치부를 드러낸다.

'가자, 우리의 동지로'의 주인공인 윤태민과 분임은 시골태생의 소박한 부부로서 귀여운 두 딸의 교육을 위해 미국

으로 건너간다. 양공주였던 누이의 초청으로 이민간 그들 식구가 가진 것이라곤 건강과 순박한 특성뿐이었다. 태민은 돈을 벌어 땅부자가 되겠다는 꿈만을 꾀고 켜켜이 쌓아온 일에 몸을 던졌다. 고되고 힘들어도 아내와 두 딸이 있기에 보람되고 기쁜 나날이었다.

그러나 이 가족 모르게 끔찍한 음모의 손길이 펼쳐온다. 교화를 통해 접근해온 장목사와 허목사 그리고 미국의 변호사 자격증까지 갖춘 교양있는 직업사기꾼 해리 킵의, 동족을 등쳐먹고 인간마저 파멸시키는 사기극이 자행된다. 영어 한마디 모르는 분임은 유령에 홀린듯 미국식 사람을 찾아 두 딸마저 희생시켜 가며 타락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린다. 두 딸아이를 만날 수조차 없게 된 태민은 가족을 되찾겠다는 집념을 품고 미국 사회의 법과 질서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강한 자들의 사기극에 맨손으로 도전한다. 이 도전의 과정에서 태민의 비극은 극한에 달한다.

소설은 우연히 만난 고향친구의 도움으로 목사의 위선과 해리 킵의 악마적 정체가 폭로됨으로써 극적으로 '해피 엔딩'

한다.

그러나 독자로서는 이러한 결말에 연뿔 수긍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과 질서라는 이름의 단단한 콘크리트벽으로 장식된 미국사회의 비정한 구조와 그것을 교묘하게 악질적으로 이용해 먹는 소위 한인 종교인 사회의 거미줄에 걸려든 힘없고 착하기만한 태민 가족의 비극은, 그런 우연으로 해결되기에는 너무나 구조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윤정모의 이 소설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믿고 헌신하는 가정, 이웃과 이웃이 다정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국사회의 건강함에 대한 새삼스런 확인과 더불어 바로 이러한 '우리의 동지'를 정말 좋은 사회로 바꾸어야겠다는 뿌듯한 의지를 갖게 해준다.

나날의 일상이 사건이자 이야기거리인 시대를 사는 탓인지 마로 허구의 이야기인 소설을 읽을 필요를 그다지 느끼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중에도 이번 윤정모의 소설집은 내 이웃의 환부에 땀과 슬픔을 대어보는 아픈 각성의 계기였기에 몇자 적어 보았다.

윤정모
신작소설집가자,
우리의
동지로

윤정모작
'가자, 우리의 동지로'
문예출판사 발행
값 3천2백원

간헐 말 흐르는 말

민주화의 바람이 불면서 갑자기 목청 커진 인사들을 보노라면 '송이가 뛰니 땅동이기도 편다'는 속담이 실감나는 요즘이다. 이쯤에 실속쟁거보자고 나서는 인사들 중에 소위 여류명사들이 한다리 끼고 있는데…….

지난 연말 '한국은 우리 여성의 낮은 정치의식 때문에 민주화가 늦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모 여류명사님. 말 한번 잘못된 탓에 각 신문사 여성기자들간에 푹푹히 구설수에 올랐던 기억도 과거사로 묻었는지 이번에는 한술 더 뜨셨다. 다음 선거에 지역구로 출마하겠다는 꿈은 물론 좋다고 접어두자. 그런데 씨의 열변은 '여성이 정치적 문맹에서 깨어나 정치력을 발휘, 국회에 지역구출신 여성위원을 다수 진출시켜야 한다'는 것.

아무리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여온 여성이라도 여성이기 때문에 밀어주어야 한다는 발상은 여성운동을 남성과의 싸움

쯤으로만 한정시키는 것인데, 이런 잘못된 생각은 지난 7월 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여성과 개헌' 공청회에서도 그대로 등장했다. 헌법의 전반적 정신, 조항을 짚어가던 발언자는 입도 뻥긋 못하게 막으면서 여성관련조항만 따졌고, 그나마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제 실시안조차도 묵살해 버렸던 것.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없이 모두가 평등한 사회, 완전한 민주사회를 향한 길목에서 여자편 남자편을 갈라 어찌겠다는 건지.

이러니 여권신장 외치는 여성정치인이 정치판의 물러리밖에 못서왔지.

* * *

9월부터 각 신문사가 지방판제작과 증면을 단행하면서 언론계는 자못 활기에 차있다.

사람들은 이제 지면이 늘어남 만큼 꼭 알아야 할 소식, 깊이 파헤쳐져야 할 사건들이 조금은 풀리고 풀려 신문 본래의 사명이 되살아날지 모른다는 기대를 걸

고 있다. 그러기에 월구독료가 8% 정도 올라 2천9백원이 된대도 군소리없이 화끈한 신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인데.

그러나 막상 두껍게 열린 16면짜리 신문을 받아든 독자들은 경악! …… "어, 이거 췌 중간지 서비스판이 끼어들었나!"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차대한 이 시기에 귀한 지면을 가득 채운 기사들은 무엇인가? '돌아오는 30대 여배우들'의 컬러사진, 마이클 잭슨의 새앨범 이야기가 이 땅의 보통사람들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그동안 크고 작은 국내의 사건 보도에 있어서 정부가 보도여부는 물론이고 기사제목과 크기까지 정해주는 이른바 '보도지침'이란 게 있어서, 문공부의 홍보정책실을 통해 각 신문사에 하달되어 보도통제를 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번에도 '증면에 관한 보도지침'이라도 있었던 것이지, 정녕 우리는 신문인들의 양심선언이라도 듣고픈 심정이다.

우리직장이야기

여직원 차별받고 노동조합 결성까지

부동산 경기가 주춤하면서 큰손들의 돈줄기가 명동의 증권가로 쏟아져 들고 있다. 우리 동서증권 종업원이 눈코 뜰새 없이 지낸 것은 당연지사. 임금인상! 쓰디어 작년 이래 계속된 호황의 열매를 우리들도 따먹을 때가 온 것이다. 우리 여직원도 창구에서 상담하랴, 단말기를 조작하랴, 출납업무를 담당하랴, 누구보다 손발을 빨리 돌리지 않았던가. 그동안 쌓인 피곤과 짜증이 솟아탕 녹듯 사라질 것 같았다.

6월 2일 임금인상을 하면서 호봉조정이 있었다. 일반 여사원도 7급에서 6급으로 일괄 조정되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4년 이상 근무한 여직원만이 2~3년 정도 감봉, 조정되다니. 그간 고참 여직원의 신속, 정확성은 창구업무의 중추신경이었다. 그런데 찬밥

신세가 되다니.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놓고 우리는 신세타령만 할 수 없었다.

6월 3일 부당한 호봉대우를 받은 52명 고참 여직원들이 회사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회사측 반응은 '여자들만 왜 모였느냐' '여직원의 질이 낮다'는 등 인사부장의 반말과 무성의한 태도뿐이었다. 다음날 고참여직원 34명은 근속연수가 오래된 여직원일수록 급여인상폭이 줄어드는 부당호봉체계를 시정할 대책회의를 가졌다.

노조결성! 우리는 이 제도적 장치만이 여직원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데 합의를 보게 되었다.

6월 5일 여직원들에 의한 동서증권노조가 전격적으로 결성되었다. 위원장 이하 전 간부가 고참 여직원으로 구성되었지만 승진의 체중으로 불만이 많던 남직원

들이 속속 노조원으로 가입하였다. 후배 여직원들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지금의 선배 모습이 미래의 자신 모습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라. 물론 우리들의 실행행사로 인사부장은 의원해직되고 여직원의 호봉은 조정되었다.

바깥 사람들은 여직원들이 모여 노조까지 만들었다는 데 감탄과 함께 걱정이런 눈길도 보내왔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은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다. 우리들의 단결된 힘에 스스로도 놀랐기 때문이다.

어쨌든 근속연수가 오래되면 임금도 많아지고 선불리 다룰 수 있게 되므로 은연중 그만두게 하는 경영자들의 얕은 속셈은 이제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가 '직장의 꽃'인 시대는 이미 지난 것이다.

동서증권 K

이런모임

공해를 반대하는 주부모임

"삼투로 머리를 감지 말아야 하는 건데……'오늘만!' 하면서 또 쓰고 말았어요"

"그럼 안되지요. '딱' 한번만 하는 게 계속돼서 지금 우리 사회가 공해 천국이 되었잖아요. 그게 '나하나만'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잖아요"

왜 이들은 삼투로 머리감는 것을 부끄러워 해야 할까? 이 회한(?) 대화를 주고 받는 사람들은 시민들의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생존과 건강을 위협하는 공해를 추방하자는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86년 9월 창립)의 주부회원들이다.

이 주부들은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에서 여성문제와 공해문제를 주제로 주최한 '여성들을 위한 공해교육'을 받고, (1년에 2번) 공해가 우리의 삶과 그대로 연결되는 절실한 문제임을 느껴 후속모임을 결성하였다. 공해교육을 통하여 반상위에 올려진 싱싱한 꽃고추와 오이가 실상은 농약덩어리요, 늘어나는 기형아 출산이 농약·화학비료에 찌든 식품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무심코 쓰는 삼투와 합성세제가 강물을 오

염시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나라의 6개 핵발전소가 소련의 체르노빌참사와 맞먹는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1기·2기의 후속모임에 참여한 주부들은 10여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한달에 한번 모여 공해·여성문제에 대한 강의와 공부, 공해피해고발전화(738-4436)를 통해 접수된 공해피해지역을 직접 답사하거나, 생활공동체운동에 참여하는 등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주변에서 찾아 활동한다. 이외에도 공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전단이나 신문을 만

들어 내기도 한다.

이중 생활공동체운동은 농민과 도시소비자가 함께 건강과 생명보호 및 땅을 살리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에 오염되지 않은 농작물을 가꾸어 나가자는 운동으로 주부들은 농촌을 방문, 농민들과 농약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된 농작물을 공동 구매하여 미식기구를 만들거나 참기름을 짜서 이웃에게 팔기도 한다.

반년째 이 주부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주부는 자신이 '구경꾼'으로 왔다가 열심히 활동하게 된 경위를 이렇게 이야기했다.

"공해문제가 심각하다는 소리를 듣고 내 가족만은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식품이 무공해인지 알고 싶어 왔어요. 그러나 막상 모임을 계속하다 보니 땅·물·공기·음식물 어느 것 하나 각종 공해물질로 오염되지 않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내 가족만 안전하면 된다는 생각이 부끄러워지네요. 자연히 관심의 폭이 내 이웃, 내 나라의 문제까지 미치게 되었고, 지금은 나의 작은 힘으로 우리 모두의 생명과 평화가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척 기쁩니다"

이 주부모임에 참여하려면 738-4547로 문의하면 된다.



어떤 직장이든 생리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물음 20여명이 일하는 봉제공장에 다니는 20세 여성 노동자입니다.

열방에서 자취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네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생리휴가'라는 걸 따냈다고 합니다. 저희 미성년자에게 생리휴가에 대해서 물어 보았더니 '창피하게, 남들 다 하는 생리를 하면서 그걸로 무슨 유난을 띠니?'라고 핀잔을 받았읍니다.

저는 요즘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생리휴가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대답 물론 생리휴가는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9조에는 '사용자는 여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생산노동이 전인류를 살 아갈 수 있게 하듯이, 여성들의 출산은 인류를 존속하게 하는 신성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신, 생리 등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모성보호입니다. 생리휴가도 그중 하나의 권리이지요.

여성들이 생리때 무리한 일을 하면 생리불순, 불임증, 유산, 난산 등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여성들은 생리가 있는 날은 되도록 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생리휴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또 휴가가 아닌 수당으로 지급되어 생리휴가를 신청하여 쉬게 되면 결근으로 처리되어 3일 치 일당이 빠져 계산되는 경우도 많습니 다.

생리휴가는 연령이나 임시직, 일용 또는 직위에 관계없이 출근일수의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에 큰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한 그 날짜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생리휴가를 신청해도 월급은 그대로 나

옵니다. 만일 생리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일당에다 생리수당을 더 하여 월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일이 생겨 결근을 하게 될 때는 대신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결근이 되지 않고 유급으로 하루를 셀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생산적 여성이나 사무직 여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생리휴가라는 것이 있는지, 생리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 여성 중에는 이런 법을 알더라도 '창피하게 어떻게' 하는 식으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당하게 생리휴가를 신청하십시오. 만약 기업주가 생리휴가를 주지 않으면 2백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으므로, 정확히 알고 요구한다면 기업주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들과 힘을 합쳐 기업주측에 생리휴가를 요구하십시오.

날말맞추기



(가로열쇠)

① "애국, 편파보도 KBS-TV를 보지 마시 다" ②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 ③ 부천 서○○사건의 주범 문귀동은 구두공장 사장으로 거리를 활보한다…… ④ 일찍 수학할 수 있는 동물. 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 ⑥ 말을 자동차에 비교한다면 이들은 운전수라고나 할까. ⑦ 갈락 놀라서 숨이 막히고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를 일컫는 말. ⑧ 같은 파를 나눈 한민족. "○○여! 일어나라. 해방을 위해~"라는 노래가 4, 19 당시 애창되었다. ⑨ 민법중 친족, 상속편을 지칭. 최근 여성계에는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 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드높다. ⑩ ○○를 하려면 $x \times x - 2424$ 로. ⑪ 최근에 임금인상투쟁과 권리쟁취를 위한 이들의 투쟁이 활발하다. ⑫ 좋은 감정. ⑬ 산, 강 등 자연을 그린 그림. ⑭ 서양 연예인들은 이론과 이것을 법역듯이 한다고. 다시 결론하는 것. ⑮ 다른 나라로 옮겨가 살기 위해 밟는 절차.

(세로열쇠)

① 아직은 때가 이르다는 말. ② ○○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질러 놓는 사람 따로 있다. ③ 우뚝이 거머잡는 대가라면, 황산 약은? ④ 조선조 9대 임금. 연신군의 아버지. ⑤ 항상 조형모래식 교육정책으로 학

부모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정부의 한 부서. ⑥ 지각, 비누, 화장지 등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⑦ 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공갈 한다. ⑧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음. ⑨ 팔래, 정소, 설것이, 육아 등 집안에서 하는 모든 일. ⑩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 ⑪ 여자가 결혼할 때 돈많은 사람들은 보통 기천만원짜리 장롱에 기백만원짜리 외제 가재도구를 사간다고 하는데…… ⑫ 천재에 인재까지 겹쳐, 이번 여름을 가장 고 통스럽게 보낸 우리 이웃.

- 정답은 다음호에 실립니다.
- 해답을 보내시는 요령은 20면에 나와있습니다.

슬라이드 '순영이의 사랑이야기'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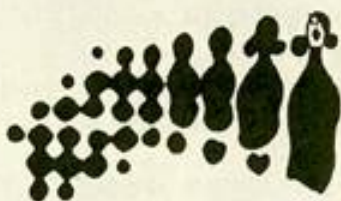
특근도 없는 모처럼의 휴일, 그동안 밀렸던 빨래를 후딱 해쳐우고난 뒤 잠시 망설였다. '영화나 한편 볼까? 아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뜸했던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밀쳐두었던 소설책이나 읽을까?' 이 궁리 저 궁리로 몸을 뒹굴거리고 있는데 친구 정미가 찾아왔다. 정미는 교회에서 재미있는 행사를 하니 함께 가보자며 나를 꼬득였다. 매사에 적극적인 정미의 부추김에 끌려 방안을 대충 정돈하고 정미를 따라나섰다.

우리가 도착하니 성문밖교회 강당은 한산하기만 했다. 순간 괜히 따라 왔다는 생각이 굴뚝간았는데 3시 30분이 좀 지나자 문밖 복도까지 사람들로 꽉 차 발디딜 틈조차 없었다. 뽕통같은 더위에다 사래발표라는 건 알아들을 수도 없고 너무도 따분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졸고 말았다. 민망하다는 듯 정미가 북쳐대는 바람에 깜짝 놀라 눈을 뜨니 강당안은 후덥지근한데다 커튼까지 내려져 있어 극장처럼 캄캄했다.

'순영이의 사랑이야기' '진짜 노동자의 연애와 결혼'이란 글자자막이 슬라이드에 보였다.

..... "시집벌친은 니가 알아서 하그래이....." 복스럽게 생긴 순영이 고향에서 돈벌러 서울로 올라올 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적은 월급을 쪼개 동생 학비를 보태고 뽕돈이나마 차곡차곡 모으는 것이 순영이의 낙이었다. 안먹고, 안입고, 안나다니고....., 고된 노동과 알뜰한 월급봉투를 비교해 볼 때마다 허무해질 때가 한두번이 아니지만, 어렵게 번돈을 헤프게 쓸 수는 없었다.

순영이 감기에 걸려 몸져 누게되자 찾아오는 친구하나 없는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다. 미처도록 엄마가 보고 싶었다. 또 순이처럼 약차같이 돈만 모아 온 순영은 호되게 알고난 후 생활이 화바뀌었다. 특근도 하지 않고 교회서클에 가입했다. 서클서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하고, 공장 친구들과 함께 디스코장이란 곳에도 처음



..... 이런 순영이의 태도는 같은 노동자인 남성노동자를 자기도 모르게 무시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순영이의 이러한 속마음을 꼬집었을 때 나는 속으로 뜨끔했다.

가봤다. 디스코장에서 만난 대학생 분위기가 풍기는 성수씨를 만나고 나서 순영은 흥박 사랑에 빠졌다. 성수씨와 비밀스런 동거를 시작했다. 처음 한두달간은 마냥 행복하지만 하던 동거생활도 나날 갈수록 고달프기만 했다. 거기에서 임신이 돼 성수씨에게 이야기하니 '그러길래 조심하라고 했잖아'라며 손찌검까지 하곤 형하니 집을 나가버렸다. 며칠이 지나도록 소식조차 없는 성수씨. 충격을 받은 순영은 실의에 빠져 오랜 방향을 거듭했다. 그후 순영은 환한 얼굴로 다시 미소를 띠는다.....

너무 재미있어 눈물릴 틈도 없이 본 '순영이의 사랑이야기'가 끝나자, 곧 '진짜 노동자의 연애와 결혼'이라는 슬라이드가 시작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앞의 내용중 그동안 만났던 교회서클 친구들과의 관계마저 끊고 대학생처럼 멋있는 성수에게 끌려 시작된 '부분별한 순영의 동거생활'에 대해 순영의 잘못된 자세를

이정선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꼬집었다.

자신이 공부를 하지 못했기에, 남자라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면 좋겠다고 바랬던 순영은 대학생차림의 성수에게 빠져들었고, 이런 순영의 태도는 같은 노동자인 남성노동자를 자기도 모르게 무시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순영의 이러한 속마음을 꼬집었을 때 나는 속으로 뜨끔했다. 고되기만한 노동이 싫고, 공순이란 말이 죽도록 듣기 싫어서 좋은 신랑을 만나는 꿈을 꾸어왔던 게 같은 처지인 남성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었다.

또 '정에 굶주린 순영이가 성수와의 무책임한 동거생활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려 한 것은 문제였다' 고도 했다. 평소에 나는 남자와 동거중인 공장친구들이나 동생들이 그 문제로 고민할 때마다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해서 모두 동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라며 모든 동거를 불순하게만 생각해왔다. '진정으로 좋아한다면 결혼한 준비가 될 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어야지!' 라는 나의 말에 '너는 너무 고리타분해!', '그러니까 언니가 연애를 못하지!' 라는 핀잔도 들었다.

그런데 슬라이드를 보고나서 나는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을 한가지 배우게 되었다. 월급이 너무 적어 혼자서는 생활을 꾸려나가기 힘든 우리같은 노동자들에게는 동거란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스스로의 변화에 놀랐다. 그렇지 만 어쩔 수 없는 동거라 할지라도 서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은 있어야 할 것 같다. 또한 혼인신고만이라도 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할 때라면 아무리 동거라도 절한 화려한 결혼식보다 더 값진 것이 아닐까?

슬라이드를 보고나서 어수선하기만 했던 내 마음은 가벼워졌다. '이제 나도 연애가 두렵지만은 않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절명한 자취방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만 내 발걸음은 신이 났다.

창립선언문

우리 여성들은 사회적노동과 가사노동의 현장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가장 참담한 피해자가 되어왔다. 여성은 생존권위협, 임금차별, 고용차별, 불완전취업, 가사노동, 비인간적 자녀교육환경의 굴레에 허덕여 왔고, 나아가 성폭력, 성차별적 문화의 공세앞에서 여성의 본원적인 건강한 인간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하나의 주체적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보장받기는 커녕 여성 자신의 생존과 모성이 파괴되는 위협에 놓여있는 것이다.

여성이 겪고있는 고통의 뿌리는 이 사회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구조에 있으며, 그위에서 경쟁위주, 물질위주의 비인간적 사회가 독버섯처럼 번창하고 있다. 여성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포함한 이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바뀌어야만 한다.

오늘 우리 여성들은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민주사회를 향한 기로에 서있다. 한편으로는 자주적 민주사회를 목마르게 갈구하는 국민들의 힘이 분출된 결과 '민주주의의 실현'이 당위적 과제로 설정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비민주적 구조를 자기 기반으로 하는 억압체력이 여전히 자신의 운운을 피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은 여성들에게 역사적으로 한발 다가설 것을 시급히 요청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여성들이 이제껏 억눌려온 자신의 권익을 되찾고 거대한 정치 세력으로 부상, 다가올 미래를 책임져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 역사적 과제앞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과거 여성해방의 대의를 위해 헌신해왔던 선배들의 투쟁정신을 이어받을 것이다. 세계 각국의 역사는 여성해방과 인간해방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세계가 진보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여성해방과 민족해방을 통일적 과제로 삼았던 일제하의 여성운동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숭한 여성들의 피끓는 투쟁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앞서간 여성들의 배로는 목숨

을 건 투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여성대중들은 우리에게 부과된 막중한 역사적 과제를 당당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50년대 이래 유지되어 온 어용적 여성운동이 여성대중들에게 심어준 부정적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이는 여성운동이란 본래 반민중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낙인찍히게 하고 지도자 중심의 운영은 여성운동을 여류명사들만이 하는 운동으로 인식시켜왔던 것이다.

70년대 들어 이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여성운동이 출발했으며, 여성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진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실제운동에서는 여성대중의 생존권 투쟁을 여성운동 속으로 흡수해 내지 못하였다.

80년대 들어서 여성문제와 사회문제를 통일적으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정치적 투쟁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으로 올바른 방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대중들의 광범한 참여 기반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의 운동은 관념적 과격성으로 이어지고 대다수 여성들과는 유리되고 말았다. 몇몇 앞장선 여성들이 목청을 높였을 뿐 대다수 고통받는 여성들은 이들을 따라나서지도, 이들의 외침을 자신의 문제와 연결시키지도 못하였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벽을 뛰어넘고자 여성대중이 함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 우리 여성들의 고통은 선두에 선 몇몇 여성들이 대변하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들은 일상적 삶을 매일 매일 살아가고 있는 여성대중들이 함께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함께 실천하면서 여성해방의 길에 동참하는 공간을 지향할 것이다. 이 길은 길고 지난하기에 때로 조급한 마음에 절망할 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여성 대중의 거대한 저력을 믿는다. 물이 스미듯 천천히 소리없이 흘러가 마침내는 도도한 격류가 되어

온갖 것을 휩쓸어 버리는 대하를 믿기에 우리는 여기에 하나로 모인 것이다.

우리 운동에는 도시와 농촌의 근로여성대중, 주부, 청년 등 고통받는 모든 여성들이 참여할 것이다. 각 계층마다 고통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 모든 여성들이 겪는 문제는 이 땅에 진정한 민주사회를 건설함으로써만 함께 해결될 수 있다.

조그만 차이를 넘어서 여성대중들이 하나로 결집되어 밀고나갈 때 우리들은 오랜 세월 버티고 선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고 해방의 기쁨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의 지침

- 우리는 자주적 민주사회의 건설을 위해 일한다.
- 우리는 민중생존권이 보장되는 민족자립경제 수립을 위해 일한다.
- 우리는 진정한 남녀평등 사회의 실현에 앞장선다.
- 우리는 평등한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해 앞장선다.
- 우리는 모성보호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제반 제도적 확립을 위해 일한다.
- 우리는 성폭력의 근절과 성차별적 문화의 개혁에 앞장선다.

1987년 9월 12일 한국여성민주회



□ 억압의 상징인 사슬을 끊고, 떠오르는 해방의 햇빛과 여성의 어려움을 같은 모양으로 표현, 구상하고 완만한 곡선으로 생명력과 움직임을 주었음.

게시판

제1 회 직장여성교실 10월 5일부터 개설

한국여성민우회는 10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주 1회 열리는 '직장여성교실'을 개설할 예정이다. 직장여성이 고민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정리하는 기회로서 기본목표는 ① 적극적으로 주체적인 삶의 자세 확립 ② 여성문제의 이해와 직업관 확립 ③ 민주시민의 역할 이해이다.

- 제 1 회 : 10월 5일(월)
 - 슬라이드 '성차별문화와 여성'
 - 강의: '주체적인 삶과 여성의 직업 의식'
 - 제 2 회 : 10월 10일(토)
 - 슬라이드 '여성의 어제와 오늘'
 - 강의: '현대산업사회에서의 여성문제'
 - 제 3 회 : 10월 16일(금)
 - 강의: '한국사회의 이해'
 - 제 4 회 : 10월 24일(토)
 - 사례 '우리 주위의 여성이야기'
 - 강의: '직장여성과 여성운동'
 - 제 5 회 : 11월 3일(금)
 - 강의: '여성과 법'
 - 제 6 회 : 11월 7일(토)~11월 8일(일)
 - 평생 직장을 위한 사례발표
 - 강의: '보람된 직장생활과 조직운영의 실제'
- 그밖에 토론회, 발표력 훈련, 노래배우

기, 춘극발표, 공동체놀이 등이 마련된다.

- 장 소 : 한국여성민우회 교육실
- 수강료 : 2만원
- 문의처 : 313-1060

한국여성민우회 상담실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본회는 9월 12일 창립과 함께 상담실을 개설하였다. 가사노동과 생산노동 현장에서 우리 여성들이 안고있는 고민을 안심하고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되고 그 가운데 발굴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여성문제 전반에 관한 사항: 연애·결혼·성문제, 그외 성차별적 문제
 - ② 노동문제에 관한 사항: 임금 및 각종수당, 해고, 산업재해 및 노동조합 활동과 교육에 관한 문제
 - ③ 교육문제에 관한 사항: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느끼는 자녀양육, 학교교육에 관한 문제.
 - ④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구제 방법 및 절차와 서류작성
- 상담시간은 월·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면접상담을 원칙으로 하나 우리 여성들이 처해있는 여러 현실을 감안하여 전화상담과 서신상담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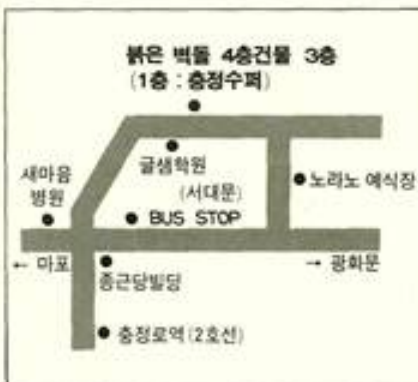


함께 가는 여성에서 알려드립니다

- 본 신문은 매월 10일 발행됩니다.
- <우리 직장 이야기> <이런 모임> <독자서평> <독자투고> 등의 난은 독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원고로 채워지는 난입니다. 원고를 직접 작성해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본 편집실로 사건을 알려줘 취재를 의뢰해 주셔도 됩니다. 그외 다른 기사들도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질책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사회사건에 대한 견해 등 형식과 내용에 상관없이 어떠한 원고도 환영합니다.
- 17면의 <여성상담실>은 본 회의 상담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건이나 '함께 가는 여성'으로 직접 문의하신 사건들로 운영됩니다.
- 본호 17면의 <날말맞추기>를 푸신 분은 엽서에 해답을 적어 본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까지 접수된 엽서를 추첨, 그중 10분에게 3개월 치 신문을 우송해 드립니다.

● 원고 등을 우송하실 분은 1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0-6 '함께 가는 여성'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 가는 여성'을 받아보시려면

- ① 본 신문은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실이나 시내 몇몇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가격은 1부에 5백원).
- ② 본 신문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회의 '신문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연회비 7천원). 본회 신문회원이 되시려면 아래의 온라인으로 송금을 해주시고 직접 방문이나 전화로 본인의 성함과 주소, 연락처 등을 말씀해 주시면 매월 신문을 우송해 드립니다.
- 송금하실 곳
 상업은행 109-08-195935 홍영주
 조흥은행 308-6-192071 홍영주
- ③ 자세한 문의는 313-1060